제 303 회 제 5 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2 년 9 월 23 일 (금)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5차 회의)

1. 군정질문(보충질문 및 답변)

부 의 안 건

1. 군정질문(의장제의) ····· 2

○의장 김경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군정질문(보충질문 및 답변)

(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 김경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문과 군수님의 일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승완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지역경제과장 구승완입니다.

○의장 김경제

그러면 희망택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보면 46개 마을이 대상이라 그랬어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40개 마을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 나머지 6개 마을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지정은 됐는데 동네에서 택시기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그 이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택시기사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택시기사를 왜 지정을 못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다가 택시기사 우선권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곳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택시기사님하고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 마을인데도 운영을 못하고 혜택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군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맞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지금 어르신들 어렵게 다니고 계시니까 가능한 방법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게 지도상의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도로상으로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직선 이렇게 자로 긋듯이 짝 긋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꼬불꼬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것은 우리가 지도상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거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직선거리로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 부분을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아, 예.
○김아진 의원
지도상으로는 700m지만 사실 산길을 따라서 길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 거리에 맞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이번에 한번 다시 읍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김아진 의원
수요조사 하신다 그러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바로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바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2019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어르신 버스비 무료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 부분과 희망택시 이용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아진 의원
희망택시비는 얼마씩 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면내는 그 동네는 100원이고요. 읍내까지 나올 때 1,500원입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한 분당 1,500원씩 내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택시 한 대당?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아니요, 그 면은 대당이고 시내 나올 때는 한 분당 이렇게.
○김아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버스가 마을로 들어가면 무료로 탈 수 있는 사항인데 버스가 안 오다 보니까 희망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희망택시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못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렇지만 이왕에 수요조사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이 희망택시가 어쨌든 농어촌버스 미운행 되는 곳에 주민들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마을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데 이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거기에 마을에 들어갈 택시를 마을에서 선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택시를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그러면 선정된 택시 1대만 그 마을에서 독점적으로 희망택시가 운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마을에서 기사분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은 그 기사분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이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마을과 택시기사의 어떤 관계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이 왜 이것을 마을에서 선정을 하게 하는지 군이 직접 택시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마을을 지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편익을 도모를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독점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하고 한번 그것을 의견을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택시가 어느 기사의 택시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이 달라질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것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도 동네마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리가 가까운 그분들을 선호를 하겠죠, 동네에서.

○이강선 의원

이것은 공공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사적영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게 행정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택시는 다 똑같은 택시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도 어쨌든 법적 요건에 맞는 기사들이 택시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택시든 희망택시를 그 해당되는 마을에서 택시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을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정 안 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리고 우리 김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이동에 대한 부분이지 어쨌든 지리적인 어떤 거리로 환산을 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마을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까지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여기 선정기준에 해당에 대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적용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경석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한경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약자의 편리성을 제고시켜야 될 증진시켜야 할 희망택시

등과 같은 이런 사업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한경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각 마을에 교통요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버스들이 서는 정류장. 대체로 이곳에는 그 마을에 구멍가게 조그만 슈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한경석 의원

그런데 희망택시를 통해서 시장에서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사거나 일을 보신 후에 어르신들이 집 앞까지 돌아가시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한경석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구멍가게에서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대세 속에서 그분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도 어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게 문을 닫는다든가 생활패턴을 전환시키는데 우리군에서도 좀 더 고려해드릴 그럴 점이 있다.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낙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옛날에는 거의 버스승강장 옆에 구멍가게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소멸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가 과잉이다 그러면 택시사업을 정리할 때 일종의 어떤 보조금, 생활안정자금을 조금이라도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 맥락에서 구멍가게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이 업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청년 일자리 역량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지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의원

이지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그 답변 중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여기 보면 청년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은 어느 정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은 몇 명이 쉐어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지금은 현재 3실에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실에 6명을 모집했는데 모집인원이 좀 미달돼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주거에 대한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저희들이 관내에 빌라 위주로 많이 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선호를

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지혜 의원

네, 요즘 청년들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욜로족들도 있고 집순이들도 있고 또 집에서 만족을 얻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계속 살던 인원들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지역에서 살다가 학업으로 인해서 도시로 나갔다가 또 다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지역에 있는 청년뿐 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거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쉐어하우스를 제공을 해야 할 때도 청년들이 그래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퀄리티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매칭 혹은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빌라들은 이미 주인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인이 허락을 또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년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혜 의원

지금 현실에서는 리모델링도 어렵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렇죠. 집주인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지혜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지금 개발되고 또 환경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서천에 내려왔을 때 친구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도시에서 내려오거나 친구들이 이곳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만의 공간, 청년들이 소통하고 거주하고 또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청년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 또 쉐어하우스처럼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간과하게 된다면 청년들이 이곳에서 정주하게 되기 어렵겠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앞으로 우리 서천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청년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청년공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소통을 좀 하시고 또 협력해서 청년들에게 정주여건 제공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또 한 가지는 읍면 단위를 봤을 때 가장 청년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지금 현재 봤을 때 서천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서천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택 빼고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서천읍내에 마련을 해주셔야 청년들도 원활하게 생활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여러 환경이 좋은 지역이 있지만 정말 이 서천읍내에 이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서천읍내

에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관사학 일자리 네트워크, 서천군 지역 맞춤형 취업박람회. 자, 일자리 네트워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과에서 주신 답변 자료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지역재단에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사학 일자리 네트워크, 서천군 지역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등등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민관사학 일자리 네트워크사업을 추진을 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사업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맞춤형 특강이나 그다음에 우수기업 탐방 그다음에 현장실습에 따른 교통비 그런 것들을 지원했고요. 대부분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장항공고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지혜 의원

그럼 서천군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걸 이용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칭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올해는 10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이 한 168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지혜 의원

참여인원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매칭결과,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면 그 이후에 취업률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후에 취업 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저희들이 그……

○이지혜 의원

별로 없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업박람회 할 때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자, 160여 명이 참석해서 10명이 매칭이 되었다 하는 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이지혜 의원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본인이 취직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별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모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 부분이 지금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올해부터 구상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데이터를 일단 뽑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욕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넣어줘야 취업률이 높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한 후에 젊은이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업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조성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지혜 의원

지금 우리군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은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 수년이 된 동안에도 분명히 축적된 기업의 데이터들이 인재상에 대한 기업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그런데 그 정보들이 이제 수확되고 이제 분

석한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 조금 늦은 대응이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이지혜 의원

또한 청년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굉장히 늦은 대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또한 청년들이 기업의 인재상과 청년들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기업이 원하는 그만큼의 수준을 우리 청년들이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서천군에서 제공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무. 그 프로그램이라 하면 그냥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내가 들었을 때 자격증이라든지 기업의 요건에 맞출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어야지 실효성 있게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정책과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이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집에서 취직 못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천군이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우리 청년들 소중하다 소중하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팀장님과 과장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하지만 최근에 제가 여쭤보았을 때도 청년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지혜 의원

그건 정말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여기 보면 다른 지역은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그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프로그램을 정말 무료로 혹은 적은 비용으로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군산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군은 대답해 주신 것처럼 민간학원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청년을 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고 정확한 분석과 함께 확실한 대책을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의원이 아주 꼼꼼하고 밀도 있게 함께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접목해서 청년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욕구뿐만 아니라 기업을 분석을 해보시면 기본이 보이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지혜 의원

네, 꼭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청년정책 무척 중요하고 그중에 청년정책 중에 일자리 역량강화 해야 되는 필요성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우리지역에는 청년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책 중에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쉐어하우스, 취업박람회, 현장실습지원금도 지급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저번에 군수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청년취업지원사업 수당지급하는 거하고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도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주거공간 확보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지역재단에서 나름대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민관사학 네트워크사업이나 맞춤형 박람회 같은 거 그다음에 청소년 직업지도 프로그램, 우수기업탐방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어쨌든 지역의 청년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그러면 지역 내에 청년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러면 부족한 청년인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자,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우선은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에 우선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나름대로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까지 포함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렇죠. 부족분을 채우는 것은 현재 더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채워가는 방식이 아니라 더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 내 청년들을 어쨌든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부족분은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유입을 영입을 해와야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도농 교류를 통해서 도시에 남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밖에 없을 건데 결국 귀농귀촌,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거기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신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귀농귀촌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고민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귀농귀촌이면 은퇴하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

들이 상당 부분,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은퇴한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보다는 청년인구 유입이 더 필요한 실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지역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말로 좀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방식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들이 물론 고도의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일자리에는 임금수준도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그런 직종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최저임금으로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그들이 그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잡았다가도 틈만 나면 도시로 이직하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 지역에서 청년이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그들을 잡기 위한 방식은 어쨌든 그렇다고 이 지역의 기업들이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하고 기업을 유지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기업활동을 임금을 청년들에게 일정부분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하더라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기업에게 그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필요한 임금에 대한 지원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것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없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어요. 그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일자리보다도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이 지역에서 정말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과해도 우리지역에 청년들이 '우리 서천에 가면 먹고살 수 있어' 이런 정도 돼야 오지. 지금 어떤 문화인프라나 뭐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보다?

절대 우리는 부족하고 절대 그것을 채워갈 순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이강선 의원

하지만 우리는 도시와는 다른 차별화된 우리지역의 정주여건이 있어요. 자연환경 좋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이지혜 의원님 절실하게 제안하신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답변에서 보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구직자의 업무능력이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은 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듣다 보면. 그런데 청년들이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채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들어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저도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 서천군에 있는 청년들은 그 컴퓨터를 활용할 기회가 그런 학습을 받을 기회가 학교에서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지역재단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컴퓨터활용능력 이게 기본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다룰 수 있는 그 기본 3종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교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또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김아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청년활동 촉진을 위해서 서천사랑활동비, 취준생 활동비 지원되고 있나요? 그 계획은 있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같이 하는 청년형 일자리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수당 해서 취업할 때 면접이나 취업하고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계속 주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면접 볼 때 20만 원씩 주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면접준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격증 딸 기회가 있으니 시간을 내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와서 보면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자격증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뭐 무조건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업에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일할 능력을 갖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이 컴퓨터활용능력 2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나왔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래된 자격증조차도 취득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고 젊은 분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 역할이 지속가능지역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승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환경보호과장 장기수입니다.

○의장 김경제

금강하구의 재해성 부유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홍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과장님, 유익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금강이 기수역인 우리 서천이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갯벌이 발달하고 갈대 서식지가 많이 펼쳐져 있고 철새들의 비상이 정말 아름다운 조건으로 서천을 만들어 가고 있고 가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금강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가 몇 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충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쓰레기 관련해서 말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금년도 8월달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강유역청 주관으로 해서 전북도 하고 저희 충남도하고 군산시청, 저희 서천군하고 금강사업단 해운항만청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대책회의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홍성희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상류층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금강하구 쓰레기처리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실효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리고 부유쓰레기 중 녹조현상 발생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실개천 관리상황은 어떤지 자료나 통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홍성희 의원

혹시 있는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들은 바가 있습니다—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해양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충남도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강하굿둑에 시범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기존에 금강하구 재해성 부유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8월달에 금강청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했었고 기존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도 어떤 정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금년도 8월달에 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7개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금강쪽에 내려오는 쓰레기가 서천만의 쓰레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쓰레기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70%를 받아오고 있고요. 도에서 일부하고 저희들이 총 금년도 사업비가 1억 8,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3,000만 원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시군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지역에 일시에 많이 모이니까 내년부터는 타지역보다는 서천을 우선을 해서 주겠다는 사항으로까지는 별도로 협의했었습니다.

○홍성희 의원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강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알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서천은 정말 쓰레기처리장이 아니다라는 강한 어조로 분명히 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금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서천군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참고로 해양쓰레기 금강하구 기준으로 해서 상류쪽은 지금 하천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내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한 210톤 정도 사전에 처리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육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해안가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그만큼 우리 서천에 해양쓰레기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서천군에 대한 책임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이게 재해성 부유쓰레기인데 이 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매년 지난해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400여 톤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량이 발생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해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연간 부유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라 제가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그때그때 수해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평상시에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생활쓰레기가 됐든 방치쓰레기 부분을 하천쪽에 주변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상류지역에 수해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 초목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수치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해마다 발생량을 집계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책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원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지역에서 이게 부유쓰레기가 상류에서부터 중류에서 하류로 내려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1억 8천 중에 나머지 위에 지자체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가 2,000만 원을 최소한도로 부담하는데 왜냐면 우리도 발생을 시키니까 우리지역에서도.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해당 지자체가 발생시키는 부유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

려오는 부유쓰레기를 지자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사례를 예를 들자면 대청호에 중류를 보면 대청호도 댐으로 밀려들어 오는 부유쓰레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 방법이 중간지점에 망을 그물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그러면 우리도 이것도 그 방식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끝 경계지점에서 자기네들이 발생시킨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밑으로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방침을 만들어 달라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설비 국가가 정부가 지원하고 해서 지자체가 그리하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부유쓰레기의 발생량은 어쨌든 최소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발생량만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합리적인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쓰레기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 파괴되고 있죠. 이 발생량을 전체 다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떠다니는 것만이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가라앉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또 발생을 하고 그 오염에 대한 처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쓰레기처리 하는 걸로만 접근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계획들은 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재해발생지 내에서 상류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은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천군 관내 20개 하천에 대해서 사전에 청소라든가 최대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차단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천하구쓰레기는 하천쓰레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목류가 많다 보니까 초목류 같은 경우는 일시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생이 됐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다 요구한 사항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스크린이라든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금강사업단쪽에서는 하는 사항이 수위조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스크린을 설치를 했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어려운 점이라는 사항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어떤 일정부분에다가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사항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위가 저희 하구쪽에서는 수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백제보가 초당 한 3,500톤 정도 방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백제보가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하구에 유입되는 거 같은 경우는 초당 5,000톤, 6,000톤 정도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쓰레기를 보고서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사항이 수위를 낮춰 놓으면 뻘이 나오더라고요. 뻘이 그 부분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 들어가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요. 수위가 올라가면 또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수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일부분 가에 있는 부분 정도는 수거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후에 해안쪽으로 나가면 그쪽편에서 서천군쪽에 내려가는 중에 한 60~70%는 서천군쪽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금년도 얘기했던 사항 어차피 상류에서 발생돼서 내려오는 쓰레기니까 앞으로 국비라든가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가 이 금강의 부유쓰레기를 처리를 하

는 부분을 금강에만 한정돼서 고민을 하다 보면 큰 거대한 강에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일일이 해소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금강에 부유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금강에서 스스로 금강변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이?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지천에서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지천에서 금강으로 모여서 그것이 떠내려오는 것인데 그러면 지천에서 그 문제를 원인을 해결을 하는 것은 더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지만 금강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그 원인은 지천에 있다. 지천은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천을 관리를 하면 금강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천을 관리하지 않고 금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일을 크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모든 지자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그 지천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천을 가보면 맨 쓰레기투성이에요. 불법투기 한 것들 그것들이 비오고 내려와서 그 지천을 따라서 금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이미 파악된 원인들을 그대로 해소하는 거 실천을 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해 발생 전에 최대한 하천하구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도 관내 20여 개소 하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요. 각 충남도내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비들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재해 발생 전에 상류 지자체라든가 생활쓰레기 등이 떠내려오지 않도록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환경보호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천, 하천관리는 건설과도 거기에 해당 부서이고 안전총괄과도 해당 부서이고 그래서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건설과가 함께 지천, 하천관리를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금강이 깨끗하고 결국 금강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다오염이 최소화돼서 우리 서천의 바다가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져서 어쨌든 바다는 우리 서천의 성장동력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깨끗해지는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어떤 발전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비인면 선도리 일대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한경석 의원입니다. 본 보충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저기, 의사진행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질문에 다 답한 이후에 말입니까?

○의장 김경제

예.

○한경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방치쓰레기를 수거·처리토록 하였으며 건축 폐자재들

은 해당 토지소유주를 찾아 청결유지명령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꼭 이렇게 해 주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한경석 의원

그런데 이 주변에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이 '집중단속기간이다, 집중지도기간이다, 이때만 피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서는 결코 안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한경석 의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야 개선이 되지 일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한경석 의원

본 의원도 이 지역을 특히 관심을 갖고 수시로 관찰하면서 꼼꼼히 체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한경석 의원

물론 이 선도리지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쓰레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발 벗고 좀 뛰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상 마치고요. 민원봉사과장님 좀 잠깐 불러주십시오.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추가질문 요청에 따라 장기수 환경보호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민원봉사과장 김은이입니다.

○한경석 의원

본 선도리 3구·2구 이 지역은 잘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한경석 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곳에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나 아니면 청결상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거부감이 들고 더욱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가족단위 방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더더욱 업소들이 계속 영업이 열려서는 아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저희 과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도리 2구 무신고 음식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사법권이 없어서 저희가 위반업소를 계속 적발해서 안전총괄과 특사경에 이첩해서 특사경에서는 그분들한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홍성검찰청에 송치해서 홍성 검찰청에서 지금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그분들이 그쪽에다 음식업소를 할 수 없는 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 위반, 적법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1차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향후에는 가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서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신고 음식업소에 대해서 위생이라든가 청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관광객들한테 청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이런 상태가 수년, 십수 년간 계속 이어

지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한경석 의원

현실적으로 이들을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다시피 그냥 둘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예.

○한경석 의원

그래서 우리 민원실 위생팀에서는 특히나 무허가 영업소들을 어떻게 이 영업행위를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대책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경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관광축제과장님 호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경제

예, 김은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열 관광축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한경석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관광축제과장 김익열입니다.

○한경석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석 의원

참 그 경치가 수려하죠?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예.

○한경석 의원

다른 곳에는 억지로, 아니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관광지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현재의 환경만 정비해도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되고도 남을 곳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소중한 천혜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보니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과연 이 지역을 관광단지는 아니어도 관광지로 정비하고 발전시킬 그럴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2년도에 비인 선도리 관광지 지정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선도리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29만 3,729평방미터입니다. 일반토지가 26만 1,000평방미터, 국공유지가 9만 2,000이고요. 총사업비는 475억에 매입토지보상비 76억을 합하면 총공사비가 10년 전에 55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 제출했으나 관광지 여건 및 환경이 미조성됐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10년 전과 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관광지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석 의원

현재 상태가 관광지 요건이나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요?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아니, 2012년에 10년 전에 충청남도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나—신성리 갈대밭처럼 관광지 지정은 충남도지사가 권한이 있습니다—그런데 충남 입장에서 비인면 선도리가 관광지 여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서 반려했습니다.

○한경석 의원

적합하지 않다?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예.

○한경석 의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1차 소견을 받았다 해서 지금 십수 년간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더 나아질 것은 없겠군요.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관광지 지정은 2008년이 기준인데 지금으로 하면 군비가 한 1,000~1,500정도 군비가 소요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저희 관광축제과 입장에서는 관광지 지정은 여건 및 변화가 되지 않는 한 다시 도로 제출하면 반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정을 않고 갯벌체험마을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한경석 의원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현장을 토요일과 일요일 약 5시간 정도를 계속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찾아오는 차량 대수를 살펴 보니 토요일날은 약 62대, 일요일날은 57대의 차량이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예.

○한경석 의원

그러다 보니 온갖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는 곳은 다 차들로 꽉 차서 사람들이 거의 편하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외부에서 휴일 같으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지로 현재 조성이 어렵다는 도의 답변이 있었다면 우리군 자체에서라도 환경정비를 하고 위생업소를 정리하고 또 최소한의 어떤 주차장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광축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찾는 어떻든 간에 우리 서천의 명소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해양수산과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저는 관련 부서장님들과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합류해서 일종의 연구모임을 발족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치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를 대비책을 세워가면서 우리 선도리 지역을 보다 나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예, 좋은 의견이고요. 의원님들과 공부모임을 만들어서 비인 선도리가 명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익열 관광축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지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의원

이지혜 의원입니다. 재해성 부유쓰레기와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문제는 여기도 보면 불법쓰레기죠. 불법쓰레기 발생 문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더욱 더 계도에 힘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쓰레기발생의 원인들이 농가나 어가나 혹은 가정에서 그 쓰레기 배출할 때에 조금 더 시민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쓰레기를 배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배출과 관련하여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또 이렇게 큰 쓰레기, 어떻게 보면 재해성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하여 계도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저희들이 현재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4명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계도라든지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불법투기 예방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개념도 있는데요. CCTV도 저희들이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 포함해서 19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같이 단속을 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30년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에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여러 홍보자료라든가 활용을 해서 지속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하는 인원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지혜 의원

총 4명의 인원으로 우리 13개 읍면을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쓰레기를 반출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천변, 지천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각 지역이라든가,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요원으로 4명이 있는 사항이고요. 또 계절적으로 도비라든가 더 확보해서 감시요원들은 지속적으로 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별도로 감시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제가 특정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A라는 지역에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천변에 쓰레기가 재해성 부유쓰레기로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아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그 쓰레기는 방치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네 분이 순찰하면서 감시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었다 함은 이 순찰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천군에 도시처럼 정말 복잡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산업별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다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계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라든가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각 읍면에다가 별도로 방치쓰레기라든가 수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방치쓰레기 수거하는 사항이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한 900여 톤을 처리를 했거든요,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지혜 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지혜 의원

지금 수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거를 하게 되는 상황은 이미 쓰레기가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그것이 더욱 더 필요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일이 발생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면 아까 이강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충분히 계도되어 질 수 있도록 그 해당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실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의원님들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요지가 있을 때 그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요지에 벗어난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상황에서 회의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요지나 이걸 사전에 좀 쪽지를 주셔서 왜 그러신지 파악하고 의사진행발언을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 이전에 사전에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군수의 답변에서 비인면 선도리 일대에 현재 확인한 바 건축자재, 폐어구, 방치폐기물 등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이번 확인에서만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건축자재는 본인 토지소유주가 건물 부수면서 일부 적치해 놓은 사항을 확인을 했고요. 폐어구라든가 방치폐기물이 산재해 있는 상황을 확인했는데 어저께 확인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확인 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지금 이 해안에 대한 유지관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일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폐기물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의 소관이 또 있을 테고 그래서 그 구분이 저로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어찌됐든 해안의 연안에 방치되고 투기하는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보호과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해안가쪽에 폐어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기물이 일반 방치폐기물 종류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해양쓰레기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도 함께 협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환경보호과장님은 해양수산과하고 그렇게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이 폐어구는 지금 선도리가 어쨌든 관광지로서 제기능을 더 십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에서 아니면 서천 외부에서 서천을 찾아오는 선도리를 찾아오는 그 관광객이 무엇을 위해서 찾아옵니까? 바다라고 하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를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대한 정취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없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어구…… 자, 어민들의 어업활동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이고요. 하지만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지를 마음대로 쓰고 그다음에 다른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에서 그곳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생계를 위한 어업만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저희들이 관련해서 쓰레기쪽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관광객들이라든가 찾고 하는데 청정한 서천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4명의 단속요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4명의 단속요원의 활동범위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서천군 전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서천군 전체에 4명이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4명의 활동이 적극적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4명의 활동력에 따라서 이지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그러면 이 4명의 단속요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연간활동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85건 해서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연간 올해까지, 올해 지금 뭐 8월 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85건.

○이강선 의원

8개월 동안에 85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건 정도 수준인데 4명이 10건의 단속 건수를 확보를 했다고 하면 참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단속이 적극적이지 않다. 물론 단속요원이 있는 현장에서 불법투기나 이렇게 법률위반을 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물론 추적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불법 투기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버리면 이득인 거예요. 왜?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반자들한테는 어쨌든 엄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치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고 결국 그럼으로써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 효과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환경보호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이 단속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단속도 하면서 계도도 하는 사항인데요. CCTV를 설치를 해놔도 사각지에다 버리는 경향도 있고 상당히 단속하는데 좀 한계…… 분명히 이 건수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건수도 직접적인 확인이 돼야만 그분이 버렸다는 게 확인이 돼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단속실적은 85건에 불과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주민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애로사항을 듣고자…… 그 애로사항은 그건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해라라고 하는 요구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런 것이 애로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처가가 선도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주민 중에 청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은가.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이분이 지금 배출하신 분이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쪽에 저도 한 30년 다니고 해서 바다는 저도 상당히 지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재활용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홍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홍성희입니다. 재활용 정말 중요하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환경과 정말 관련이 깊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군이 관리 인원 1명이 근무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인 연 4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연간 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 그래서 운영비가 600만 원을 저기한다고 한다고 하면 1,800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재활용센터라고 하면 연간 1,800이란 사업비는 정말 조금 낮은 것 이해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군이 직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기존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여기 뭐 의류 판매라든가 이런 수선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품목을 다양화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다 보니까 물품을 전시를 해놔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소유주하고 상의를 해서 형광등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진열대라든가 선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지역적인 위치도는 95년도부터 근 30년 가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센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걸로 봐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간판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행정이 맡아서 할 때는 민간이 하는 거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누가 보기에는 방치했다는 수준

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실 재활용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수거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시는데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 역할을 다 하시고 보다 나은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홍성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재활용센터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현장방문도 가보고 제안도 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기는 했는데 사실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쪽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들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서천읍내에도 도로변에 잘 보이는 곳에 빈 상가들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많기야 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활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는 그리고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읍에 한 군데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각 지역에 거점이 되는 지역에 소규모로라도 분점식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항쪽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쪽은 아이들이 많고 이러면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돼서 재활용센터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서면쪽에는 외국인들 많이 있으니까 의류 접근성이 쉬워지잖아요. 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쓰레기에 대해서 방치쓰레기 얘기도 나오고 부유쓰레기도 나오고 하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첫 번째는 안 써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나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현 상태로 지금 30년 운영했다고 그것이 다 홍보가 됐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시지 마시고 있는 것을 당장 위치변경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년부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우셔서 시내에 잘보이는 곳 상가, 또 다른 장소 장항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장이 열리는 곳들은 주민들이 모이니까 그런 곳들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재활용센터는 효율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연간 임대료 4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600만 원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적자상태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재활용센터의 운영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자원을 우리가 자원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재활용과 재사용이 있습니다. 재사용은 예를

들어서 옷류, 의류를 재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른 사람이 또 입는 것입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면 그 의류를 인형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사용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사용은 어떻게…… 재활용센터에 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내가 필요한 옷을, 어떤 옷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발도 있고 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을 또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보셨겠지만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쾌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삶의 수준에 걸맞은 시설을 정비를 해서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옷이나 필요한 어떤 생활용품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저렴합니다. 티셔츠 하나 1,000원이면 구입할 수도 있고요. 양복 자켓도 있어요. 아마 5,000원 이하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정도면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비싼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단순히 우리가 못 입는 옷 아니면 못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을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집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의류 같은 게 정말로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이 폐기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다른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소라든가 리모델링 분야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단순하게 사무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재활용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지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의원

이지혜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이지혜 의원

우리 재활용센터가 있고 재활용센터와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엄마, 아버지들도 잘 사용하시는 땡땡마켓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명을 말할 수 없어서, 땡땡 대신 네모네모마켓이라고 토끼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고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 재사용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잘 오가고 소비하고 서로 교환하는 그 마켓과 우리 재활용센터와 비교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모네모마켓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예, 그 물품들이 그래도 위생적이다 내지는 사용할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재활용센터의 물품들은 젊은 사람들의 인식부터 다시 사용하기에 꺼려지는 인식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를 변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활용도 높이

고 또 분위기 쇄신을 해서 정말 사용함직한 다시 사용함직한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재사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그리고 업사이클링.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조되어서 다시 한번 죽은 아이템에 생명을 부여하는 업사이클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장 김경제

폐윤활유 및 통 수거 현황과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한경석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김경제

그냥, 해양수산과 환경오염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사진행발언은 별도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를 그냥 하신 걸로 접수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한경석 의원

어떻게요? 해양수산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요?

○의장 김경제

해양수산과 질의를…… 오늘 일정이 끝나면 마지막 일정에 의원님 그 발언취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선박용 폐윤활유, 폐유압유 수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그 답변서에 보면 “이제는 어업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폐유 및 용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다소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해양오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육상에 올라오면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만이나 어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관리조례로 수협에서 수거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업인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업인 환경인식교육을 2021년부터 실시를 해서 연간 300명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상에서 남모르게 투기하거나 버려지는 폐유 혹은 폐유통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그렇지만 내륙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유와 또 용기 수거관리는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석 의원

현재는 언급한 바와 같이 윤활유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맹점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수협에서 판매되는 거 외에도 일반 주요소 혹은 선구점 등에서도 이 윤활유와 유압유를 판매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그러면 이 윤활유와 유압유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이 들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환경 유해성분이 많다고 해서 지정폐기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경석 의원

황, 아연, 납 등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중금속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유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걸 틈타서 해안가에 버려지거나 바다에서 버려진다면 정말로 큰일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어장은 황폐화 될 것이고 또 어종들이 폐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인체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충분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이렇게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윤활유와 유압유가 판매가 됐으면 어선선박에서 사용한 연후에 수거가 이루어져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그런데 판매 대비 수거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차이만큼 어디로 증발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요체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 좀 밝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지금은 윤활유 실명제를 해경에서 2017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그 스티커에 따라서 회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제거를 하면 누가 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서 수협을 해경에서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수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인증 같은 거를 판매할 때 발급을 해서 그걸 가져오면 면세유 공급이나 이런 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석 의원

현재는 그런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래서 이 업무가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해안을 접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선박용 폐유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어떤 업무를 표준화를 이루었을 테니까 그런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서 벤치마킹 하

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먼저 여러 가지 시책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민이나 행정 관서에서나 수협에서나 폐유와 이 윤활유, 폐유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모멘텀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품목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게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그런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이지혜 의원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해양환경은 공간적으로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고 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을 예방하는 게 가장 상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래서 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 이런 제도를 해양환경관리법이나 관련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들은 문제가 없죠, 대부분. 어려움이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해양환경교육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가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것이 결국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눈앞에 현실은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이 환경교육이 솔직히 가장 좋은 환경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질문은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환경교육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우선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일과 환경보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어업인들이든 일반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기본 교육수준은 충분히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게 실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행정이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미온적이지 않느냐. 결국 처벌이 강하면 하지 않습니다. 잘 지켜나갑니다. 처벌이 없을 때 그걸 위반하면 위반자한테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냥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교육은 실시하면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 연계시책이 단속이라고 하는 어떤 처벌이 따라야지만이 그 교육된 일이 실천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이런 우리지역의 어민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후에 어떤 후속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가 사실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있고요. 사실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들이 적발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폐윤활유 등 폐유, 유압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용기는 지정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지정폐기물은 아닌데요.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할 때 윤활유나 선체 폐유 등은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쓰레기라든지 걸레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를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 윤활유통이나 유류통 용기에는 그것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여분의 유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통에.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럼 그 용기에 남아 있는 유류는 어쨌든 폐유류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의료폐기물의 예를 들어서 의료용 주사기를 사용을 할 때—일회용 주사기죠—사용을 할 때 거기에 쌓여 있는 비닐봉지도 있고요. 포장용기. 그거 다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직접 인체에 뭔가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의료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모든 것들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기를 지정폐기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했을 때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예전에 폐유수거용기를 설치했을 때도 폐유는 수거가 되는데 통을 그대로 방치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천시나 이런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마련을 했고 수협에서 그걸 별도로 자기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자기예산을 들여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불편한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예산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분간해서 의무가 있는 그 책임범위를 정해서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성을 가지고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수협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얼마 전에 서면 홍원항에서 수협 주유소에서 유류 유출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저장탱크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장탱크에서 유류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는 있었는데요.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유출이 없었던 걸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거 다 예산 받아서 다시 저장탱크 새로 교체하고 하는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그때 바다로 유출은 안 됐고요. 땅으로 누수가 된 것은 정화작업을 다 했죠.

○이강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장시설이 노후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장시설이 관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많은 양의 유류를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오염이 발생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그 수협 주유소라든지 모든 곳들에 특히 해양환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걸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바다 인근에 바다오염이 예측되는 예상되는 아니면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또한 예방이 가장 상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 서천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대표적 우리 서천군의 농수산물로 사례를 든 것이 서래야쌀과 서천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품질 좋은 생산품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천김이 김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가 2017년도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인지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그때 조사한 결과로는 완도김 그리고 해남김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보령하고 대천김이 같이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보령, 대천김을 합쳤을 때 보령이 조금 앞서고 광천, 홍성을 또 합쳤을 때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충남권역에서 물김 생산량이 90%를 상회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90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95% 정도 됩니다.

○한경석 의원

그럼 거의 다 충남에서는 서천에서 공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런데 충남에서는 '김은 서천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정신승리 여기에 취해서 어떤 우리 서천김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홍보나 판촉활동은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령이나 예전에 인지도가 높은 광천김 또 대천김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은 뭐 지하철 광고도 했고요. 대형 전광판 광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국내에 판촉행사 등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쿠팡 등을 통해서 온라인 판촉행사라든지 국외 판촉행사 등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석 의원

제가 평소에도 우리 서천의 마트나 또 인접한 군산지역 마트에 가서 살펴 보면 우리 서천김이 그다지 많이 진열되어 있진 않더군요.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래서 '김 하면 서천김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게 아니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서천김, 서래야 이 인식을 심어줄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어제 제가 한 사례로 제시했듯이 우리 육상계의 아주 떠오르는 스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한경석 의원

우상혁 같은, 우리 서천군 소속 아닙니까? 제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유명인사를 내세워서 같이 광고를 하는 것이죠. 해 가지고 그 유명세 탄 그런 스타와 우리 제품을 가치를 동일시 시켜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가 내년까지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이런 판촉활동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브랜드밸류.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업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요. 김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 의회에서 당진에 있는 장애인체전에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다가 서산휴게소에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가면서 저녁에 메뉴에 나온 게 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령김이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제공되는 김은 저렴한 것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김은 어떤 뭐 보령이나 광천김이 어쨌든 브랜드가치를 높게 평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에 있어서는 우리 서천김이 부족함이 없다. 훨씬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나 국내에서도 서천김보다는 보령, 광천김이 더 우수하게 느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보령이나 광천에서는 그 브랜드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보령, 광천보다 뒤져서 갈 이유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홍보하고 마케팅이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특산품을 만들은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뭔가 판매를 할 때 꼭 홍보라고 하는 걸 붙여서 홍보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서래야라고 하는 브랜드로 우리가 특산품을 판매도 하고 하는데 방법

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제 경험으로 30년 전에 마일드세븐이라고 하는 일제 담배가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어떻게 진출했냐면 공짜로 제공을 했습니다. 슈퍼마켓 이런 데에 좌판을 벌이고 오는 손님들한테 공짜로 피게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한 갑 사면 한 갑을 덤으로 주는 이런 행사를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에 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마일드세븐 담배가 담배가게 진열대에 올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꼭 뭐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필요한 정도를 우리가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프로모션 판촉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이거 농산물 생산공장이나 생산시설에서 이런 프로모션까지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그 프로모션 때문에 도산할 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군이 이런 지원들은 해서 지역농가들이 어가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우리지역에 서래야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홍보계획에 포함된 사항도 6차산업화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김이 국내소비도 많이 되지만 수출이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용 브랜드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적극적인 어떤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더하면 6차산업이 되죠. 그래서 생산 어가가 1차산업 생산해서 2차산업 가공하고 3차산업 마케팅 판매까지 해가야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왜? 그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6차산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우리군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이강선 의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6차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때까지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6차산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그렇지 못하면 그 지원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낭비가 되지 않고 꼭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 다음에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또 더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서래야브랜드 가치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희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홍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과장님, 서천김이 왜 맛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서천김은 아무래도 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큰 식물들이 맛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금강하구에 위치해 있고 갯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충분해서 김도 잘 자라고 맛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맞습니다. 어제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무례하게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공직자분이나 저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홍보에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홍성희 의원

앞으로도 서천김의 우수성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또 앞장서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은 어민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할 때 상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서천김의 우수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건설과장 전용각입니다.

○의장 김경제

농업용 용수로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원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전에 답변 주신 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품종에 관련해서 미리 예시를 하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농민들이 수매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이 모내기 기간이 거의 한 달 다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랬었습니다.

○김원섭 의원

지금 수매품종을 예시를 하다 보니까 수매를 하기 위한 그런 농사를 많이 짓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기간이 동시에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물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 의원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저희들이 26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약 2,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대응을 해서 했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 집중적으로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현상을 하신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이양수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사용 않던 것들을 보수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각 구역마다 이틀은 A구역, 이틀은 B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형식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달래고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그러면 본펌프장에서 펌핑양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전용각

양은 부족하진 않은데요. 일시적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을 구멍을 다 열어놓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용수 라인에서 말단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전용각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했을 때에는 말단부도 말단부고 그런 부분들이 한 7~8군데 되고요. 일부는 또 위쪽으로 올려보내 줘야 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어서 포함한다고 하면 한 15~16군데 이상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이런 현상이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물부족 현상을.

U자관 시설한 부분 있죠?

○건설과장 전용각

네.

○김원섭 의원

경작지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U자관 시설.

○건설과장 전용각

예, 용수로입니다.

○김원섭 의원

거의 다 말썽이 있죠, 지금?

○건설과장 전용각

과거에 수로관이 나오기 전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타설해서 개거공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음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었지만 요즘은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공사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수로관으로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음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시기에는 괜찮지만 오랜 기간이 가게 되면 이음부분에 대한 몰탈작업들이 탈락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누수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라인공사 해서 설치한 거하고 U자관 설치한 거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날까요?

○건설과장 전용각

지금은 현장타설하는 부분도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수로관 공사하고 현장타설공사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요즘 철근값도 오르고 해서 약 15%~30% 정도 이렇게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이에 대한 U자관과 수로관으로 한 그 수명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건설과장 전용각

지금 수명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기 나름인 부분인데요. 수로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20년 정도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현장타설이었지만 지금은 레미콘 타설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40~50년 이상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앞으로 용수로공사 하실 때는 U자관보다는 폼 대서 이렇게 좀 타설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누수도 적고 수명도 오래 가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경작자가 U자관 시설을 한 데, 경작지보다 약간 높게 시설된 데 있죠? 다 누수가 발생해서 바로 옆부분에 다 수렁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논두렁을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큼 길게 보면 한 100m까지도 쭉 한 2m해서 100m까지도 경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현장타설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다가 용배수로 설치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전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한테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수로관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잘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위험성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타설로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시급한 부분으로 해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나름대로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의원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게 용수가 공급된다든가 단수가 될 때 이런 거를 전산관리를 해서 이렇게 단수예고를 해 주시고 하면, 이게 단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모터 설치해서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야간에 단수가 돼요. 빈 모터 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이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민원접수센터 설치한다고……

○건설과장 전용각

예, 읍면에다가 그렇게……

○김원섭 의원

거기에서 이렇게 좀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미리 좀 예고를 해 주시고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좀 알려주시고 해서 용수가 물공급이 언제 된다든가 또 단수가 언제 된다든가 이런 거를 예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예, 참고사항으로 소농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농들은 거의 문제점이 없는데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A면에다도 몇 필지 농사를 지으시고 B면에다도, C면에다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농들에 대한 연락처를 읍면에다도 마련해 놓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원섭 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전용각

네.

○김원섭 의원

나궁리 은전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그쪽에 나궁리 하단부에 정자슈퍼 건너쪽에. 도로 밑에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도로 밑에 쪽에 U자관으로 라인공사가 쭉 되어 있는데 용수로 공사 되어 있는데 물이 안 가요, 거기가. 거기는 물이 안 가고 오히려 배수로 쪽에서 펌핑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그 말씀 제가 드렸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임시해결 하셨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섭 의원

앞으로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그리고 축동저수지 서부간선 한산중학교까지 오는 라인 있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있습니다.

○김원섭 의원

그쪽에 한산중학교 오기 전에 죽촌 그쪽 라인에서 물이 끊겨요. 공급이 안 돼요. 이쪽 한산중학교 앞쪽까지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원섭 의원

이 부분을 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누수 뭐 이렇게……

○건설과장 전용각

금년도 추수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누수 보강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섭 의원

제 생각에는 누수를 잡아도 거기까지 물이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상천에서 일부 구간까지 물높이를 조절해서 그래서 펌핑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그건 한번 저희들이 측량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항상 민원 여러 가지 드리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용배수로 민원접수센터를 설치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아진 의원

현재는 사실 읍면에 토목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설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설계도 내고 민원접수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아진 의원

그렇지만 접수 받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김아진 의원

예산이 반영되고 또 실제로 설치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읍면에서는 그거를 수용할 만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의원들이나 건설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접수센터를 새로 홍보도 하고 하실 텐데 어떤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그 민원접수센터라는 부분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바쁜 영농철에 농민들이 먼 걸음까지 해서 군청까지 오셔서 차편도 없는데 버스타고 오셔서 하면 그건 하루일과를 다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다가 그런 애로 사항을 접수를 해주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현지확인이라든지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확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언으로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민원접수센터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사실 지금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데 그것이 군청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현재는?

○건설과장 전용각

그거는 아니고요. 바쁘신 어르신들이 군청까지 오시기가 하루일과를 해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읍면에다 접수를 해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현지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민원인들에 대한 편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아진 의원

네,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까지나 수용이 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건설과장 전용각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읍면에서 긴급하다고 한 사항들은 건설과에서 잘 해결해주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토목 담당하시는 토목전공자가 읍면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없는 13개 읍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건설과장 전용각

제 능력 밖인데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김아진 의원

그런 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주기적으로 상담을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없는 읍면에서는 건설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비용을 따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에 안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그 설계비용까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건설과장 전용각

금년에도 저희가 6개 읍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으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회피할 수 있어서 팀별로 A팀은 어느 어느 면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지도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나가서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좀 해소된 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휴직 갔다 복귀하는 직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신 거는 아는데 더 보태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 생각하셔서 어렵더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문제는 매년, 매시간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전용각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주민들은 그만큼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담당부서로서는 이 제한된 예산으로 전체 지역을 커버를 하려니 애로 사항이 많죠.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지적으로 접근을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만 해소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강제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또 예산이 필요하고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이 용수와 배수를 해결하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민원인이 발생하면 그 민원해소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위에서 물을 쓰면 밑에는 그 물이 도달하지 않아서 말단에서 어쨌든 용수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용수가 부족해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사실은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그 용수부족은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필요한 용수를 그 물을 필요한 물자원을 수자원을 잘 그래도 조리있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을 하느냐. 그중에 하나가 김원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낭비되는 누수되는 그 물자원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수를 차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용수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있는 물자원만이라도 제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수로관 공사를 통해서 이음매 부분이 탈락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것이 가장 많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때문에 현장타설 개거공사 방식을 갖지 않고 수로관 공사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수로관 공사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바닥을 예를 들어 버림콘크리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버림콘크리트, 기초콘트리트까지는 가지 않지만 버림콘크리트 정도로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것을 기초 콘크리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수로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 공사현장을 보면 버림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방에 의해서 버림콘크리트도 제대로 좀 하고 그 위에 수로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음매 부분에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그거는 하나의 예산이 추가적인 부분으로 수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되겠지만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상에서 시공위험이라든지 조립할 때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사감독만 철두철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90% 이상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은, 말씀에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네.

○이강선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긴 하고 있지만 많은 양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서너 명이서 총괄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짚어볼 수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준공검사 할 때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시공사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모든 공사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게을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게 현장에 공사감독관이 24시간 현장 공사할 때 다 지켜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수로관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 내에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게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내 업체와 연찬을 통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이 공사감독관이 지켜서 있어야지만 제대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관이 없다 하더라도 업체 스스로 시방에 맞게 공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업무연찬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용각

예, 저희 과에서뿐만 아니고 일부 과에서도 월 1회 정도씩은 공정회의를 현재 현장대리인 하고 공사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회의를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해나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인 시공사를 모아놓고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교육을 하고요. 공정회의를 자주 열어서라도 부실시공이 없게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어쨌든 감독의 문제, 행정의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업체들은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냐? 어쨌든 농번기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가 끝난 이후에 농한기에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발주를 늦게 해서 공기가 짧아져서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 물론 설계해서 발주하는 그 부서 입장에서는 뭔가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부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발주 미리미리 하고 설계 미리미리 해서 또 공사업체들도 준비를 해서 딱 추수가 마무리되면 공사 적기가 되면 금방 투입돼서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 하지 않도록……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콘크리트 타설하고 얼고. 그래서 그거 끝나면 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물으면 "우리가 공사를 늦게 시작했다" "왜 늦게 시작하냐. 일찍 시작해야죠" 하면 "발주를 늦게 해서 이때가 가장 빠르게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업체도 공사를 성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공사감독 철저하게 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고 좀 더 나은 영농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용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도시건축과장 정해민입니다.

○의장 김경제

도시재생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제

홍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획수립 역량강화는 행정이 합니까, 용역사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역량강화는 보통 용역사가 합니다.

○홍성희 의원
사업계획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그렇습니다.
○홍성희 의원
말씀하시기를 여기 다소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홍성희 의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 운영방식이 보수적이라면 또 주민의견수렴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소리를 반영 않는 것도 보수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아니요, 의원님. 거기서 말씀드린 보수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요, 저희가 보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정해줄 때 이를테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전체 사업비의 10% 안에서 활용을 하라, 아니면 어떤 거는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사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는 이런 거여서 20%까지 역량강화사업을 쓰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역량강화사업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시설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정해주는 사업비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들의 역량강화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홍성희 의원
역량강화는 용역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홍성희 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의 소리를 반영 않는 역량강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희 의원
그런데 때로는 그에 반해서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여기로 베껴 갖고 와서 하는 경우를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알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그래서 사업이 완성이 되더라도 항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들만의 일터, 그들만의 축제” 이런 것들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이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사업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잃었다는 말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홍성희 의원
그래서 그런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홍성희 의원
그래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처음에 사업목적이 그랬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홍성희 의원
하나의 도시재생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목적을 잃었다면 나중에는 그게 과연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고 힘든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사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잘해서 도시재생 또 농촌중심지사업 이 사업이 작은 사업들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홍성희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과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무척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도시도 생명을 가진 거라고 보고 도시도 발전해서 어느 발전단계가 지나면 정점에 이르면 다시 쇠퇴하는 게 도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도시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랜 세월 도시가 형성이 돼서 오랜 세월 유지하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들이 쇠퇴기에 와서 그 쇠퇴기에 와서 몰락하는 걸 그대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재생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결국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거, 활성화를 시키는 일이죠.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그런데 지금 서천에서 우리지역에서 제가 본 경험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지역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 중에 서천읍 군사2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그다음에 군사1리 지역도 했고. 그런데 완성은 계획대로 완성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군사2리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를테면 계동리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도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결국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마을을 개선하고 개조하고 더 나은 삶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뭐 그 사업방식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근본 목적은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 터미널지구하고 장항 성원그린나래 그런 여러 곳들이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 새뜰마을사업, 군사3리는 지금 현재 새뜰마을사업 진행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이게 군사2리 그다음에 군사1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는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흡족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주민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수요욕구가 웬만큼 충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 홍성희 의원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수요욕구를 정말로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만 그 성공적인 사업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말씀만 드리면 보통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은 사실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수요대로 저희가 담장을 개선해 준다거나 슬레이트 철거하고 도로를 넓혀주고 주로 그런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추진하는 뭐 우리 뉴딜사업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나 다른 쪽에 어떤 문화나 어떤 예술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단계고.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렇게 의도는 그렇고 취지는 그런 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그런데 결과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느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 사업들이 어쨌든 용역사는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좋은 그림을 그려내서 어쨌든 전에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그 경험에 우리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그 계획 자체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그 계획 자체는 좋지만 과연 우리현실에 우리지역의 현실과 부합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은 용역사들이 잘 못합니다.

왜?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상황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여기 와서 1년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기초데이터를 갖고서 용역을 수행을 해나가는 게 보통이죠. 거기에 어쨌든 담당자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또 더 추가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업과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요구도 하고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취사선택은 어쨌든 담당부서와 그 용역사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그 수요욕구를 취합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결과에 가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 또 주민들이 외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참 미안한 얘기인데 계동지구를 가보십시오. 그 시설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에 함께 해서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발을 딛고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뉴딜사업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 일들을 프로그램을 어쨌든 돌리고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아 우리지역이 재생을 해야 된다. 재생에 절실함을 갖고 내 집 앞이 아니라도 우리 전체가 재생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 앞에 큰 감 안 놔도 좋겠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 술술 풀려가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 서로 외면하고, 외면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어쨌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다 완성은 해야 되고 그러면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는 예산을 들이고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절실합니다. 도시재생이 지금 서천읍 같은 경우 서천군청사가 신청사부지로 이전을 하는 사거리, 삼거리에도 영향을 당연히 받고 삼거리는 당연히 터미널지구 가까이 있는 곳이고 지금 문예의전당도 옮겨간다고 하죠. 이거 공동화, 그다음에 지역재생을 그렇게 도시재생을 과연 이게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 간단히 사업추진하는 걸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로 이 지역이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 범위에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성공적으로 그 지역이 완료되면 그 시너지는 그 인근 주변까지 당연히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강선 의원

그건 사업 범위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연계되는 많은 지역들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절실함을 갖고 그 사업들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혜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지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의원

과장님, 방금 이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일부분은……

○이지혜 의원

용역사는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있지만 현장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접하고 가까이에서 접하죠.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지혜 의원

어떻게 보면 용역사와 주민들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은 현장센터의 직원과 용역사를 잘 매니지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지혜 의원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함은 우리 행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뭐…… 예.

○이지혜 의원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도시재생의 업무이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또 한 가지는 용역사…… 우리가 건축이나 설계 같은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이나 설계가 용역이 들어갈 때에 정확한 과업지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방향과 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저희가 할 때 과업지침을 만들어 주죠.

○이지혜 의원

예, 과업지침을 만들어 주는데 그 과업지침이 상세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온전히 수용되지 못해서 그 과업지침에서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거나 비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그리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을 얻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네, 그래서 저희가 총괄기획단도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런 보고회도 갖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의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못한 사례들이 있지요. 제가 그 사례들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청에서 과업지침서를 내릴 때에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인지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얻는다든지 함께 협력을 한다든지 한번 더 체크를 했으면 저희의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들에 있어서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이지혜 의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우리군 안에서 군청 행정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업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뭐 총괄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건축과 설계에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과도 계시고 또 도시건축과 내에서도 전문가가 계시니 한번 더, 도시재생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다시는 아쉬운 혹은 마음 아픈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알겠습니다.

○이지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추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좀 변형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김아진 의원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면서 신축 위주로 갈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정비쪽으로……

○김아진 의원

예,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여태까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앞으로 정부가 바뀌는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향 파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중앙부서에 팀들의 이름이 다 도시재생이었는데 그게 도시정비로, 재생이 정비로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장항 창선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서를 도로 제출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 내에서 2개소를 선정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국토부 컨설팅을 받은 결과 도내에서 한 군데만 선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구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계속 줄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요.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데 선정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벌써부터 예산도 좀 축소가 된 것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이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오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하시고. '그냥 하나 선정해 준다니까 제출해서 되겠지'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타지역이나 아니면 정부 동향이 어떤지를 미리미리 좀 파악하시고 내년 또 후년, 앞으로의 5년 동안은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 계획을 장기계획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안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장항 말고 저희가 따로 또 계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을 전략계획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의사진행은 의원님 취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아서…… 자꾸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 말고 그냥 평범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도 계속 하시면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또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의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그냥 듣는 형식의 그냥 "네, 네, 네" 이런 답변을 삼가하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과장을 떠나서 더 위에 계신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요구하시는데 하여튼 분명히 우리 실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팀장님들 과장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끝나면 팀장님들이 자리이동을 하시는데요. 의원님들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팀장님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최소한 나가실 때 급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조심해서 나가셔야지 여러분이 그냥 우르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의사에 분명히 방해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김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정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입니다.

○의장 김경제

두왕2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좌우로 뒤로 전답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약 20여 호가 흘러내리는 생활오폐수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채전밭, 배추를 심고 무를 심은 곳에 이러한 오폐수가 스며들면서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파인 웅덩이에는 이 오폐수가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경우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우선 맑은물사업소장은 하수처리시설에 임무를 다해야 될 직책을 찾고 있고요. 두왕리 지구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 두왕지구에 포함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수부 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됐고 기존에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16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계속 살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아무래도 다른 데로 가길 원하겠죠.

○한경석 의원

예, 우리 과장님과 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이 바로 두왕2리 새낙굴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집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11가구 집은 예전과 똑같이 오폐수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말이죠.

그런데 새로 신축한 12가구는 7톤짜리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이면서도 이 11가구의 오수는 오수처리장에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흘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 됐다 안 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한마을에서 어떻게 절반을 딱 나눠서 한쪽은 오수처리를 하고 한쪽은 오수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농경지에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런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십수 년째 이런 환경에서 주민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오수문제로 인해서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의 문제만을 기대서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예산확보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네,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한데 본예산 부분이 지금 확정이 돼서……

○한경석 의원

그러니까 23년도.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예, 내년도 군비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네, 이런 사례에서와 같이 행정의 오류나 행정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고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두왕2리 말고도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예,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려고 노력은 하는데 환경부 승인사항에 경제성 문제로 해서 반영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급한 데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장항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로서는 이왕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경석 의원

네, 특히 이 마을은 수년째 동일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예, 그렇습니다.

○한경석 의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두왕2리 주민들의 이 오수숙원사업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정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숙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입니다.
○의장 김경제
송림 맥문동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홍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홍성희입니다. 원래 우리 송림이 아름답긴 했지만 다시 새로운 명소로 크게 각광 받기까지 그동안 주민과 행정의 뒷받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송림숲을 가꾸는 부분에 있어서요?
○홍성희 의원
맥문동이 있기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맥문동 있기까지요? 아직 맥문동 오셔서 불편한 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선은 다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알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장항송림이 이제는 맥문동이 꽃 필 때뿐만이 아니라 4계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변모했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관광객 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관광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는 지역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대안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우선은 송림숲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장항지역이나 서천군내로 확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유추할 건데 한 12월 정도에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내년 정도에 우선은 맥문동축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맥문동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송림숲 안에서만 그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항 시내권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들 또 시내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관광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시내 안에서도 다양한 행사도 공연전시 등이 있어서 송림숲에 오신 분들이 장항읍에서도 충분한 그런 관광을 하시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천군 안에 오래 머물고 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성희 의원
축제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이 축제비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수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맥문동축제의 경우에는 송림숲 안에서는 정말 힐링축제로 그 자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약간의 그런 포토존이나 그다음에 정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축제장으로 세팅을 해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장항시내 안에서는 문화시설들로 하여금 대중 가수나 이런 공연들이 아니라 이렇게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컨셉을 잡아볼 계획이고 또 저희가 작은 맥문동 화분을 나눠주게 한다라고 할 경우에 송림숲에 다녀오신 분이 맥문동 화분은 장항 시내권에서 그거를 받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든가 다양하게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다양한 구성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숲 맨 끝부분에 가면 사구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홍성희 의원

그 사구가 그 소나무 뿌리가 지금도 계속 사구의 무너짐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홍성희 의원

그래서 “민간인땅이라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무리 민간인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제가 해양수산과하고 함께 그 나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그림을 그리자면 거기에서 끝부분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홍성희 의원

거기에서 데크까지 가기가 상당히 자갈이라든지, 지금까지 데크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계속 민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데크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수산과에서 데크 끝부분에서 스카이워크 쪽으로 해서 부잔교 형식의 그런 다리, 부잔교 다리를 이렇게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희 의원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부잔교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저도 생각을 더 해봐야겠네요.

이렇듯 송림이 아름답고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관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금까지는 올해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정말 자랑거리다, 앞으로 이것을 더 좋은 관광 활성화에 연결시켜야겠다’ 지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지금 보충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송림 맥문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장항 송림숲은 우리지역의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러면서 맥문동 꽃은 거기에 더해져 있고요.

맥문동이, 저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맥문동을 식재하면서 맥문동이 꽃이 피고 그러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맥문동이 만개해서 차를 길 옆에도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람들의 인식의 방식은 항시 적응하고 또 그다음에 적응하면 식상하고 눈높이를 계속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좋다고 해서 마냥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숙박을 했었어요. 펜션에서. 한 일주일 전인데 큰 방을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이 안 됩니다. 다 차서. 그리고 작은 방도 다 차고. 그래서 주말에 어쨌든 방이 찼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기뻐했어요. 내가 예약을 못해서 불편하긴 했지만.

그런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맥문동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맙고 관리를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맥문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펜션이라든지 식당 그다음에 관련…… 또 저기 캠핑장 밤에 가니까 거기도 아주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렇게 저는 캠핑을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방문객이 오다 보면 좀 게을러집니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곳이 우리의 지원으로 보조금으로 국고지원이나 아니면 군비지원으로 조성이 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혜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지금 어떤 경우는 이불에서 냄새도 난다 그러고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불만도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 얼마만큼의 관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도하고…… 그거 못살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더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또 살피고 거기에서 위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난립하다 보면 망가지고 그러면 방문객의 발길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지금 좋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계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펜션이나 이런 숙박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관련 소관부서에 전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림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곰솔이고 맥문동 같은 경우에는 해갈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은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곰솔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중요한 그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무관리 또 그런 시설관리쪽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 2023년도에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주변에 울타리나 이런 것도 잘 예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어쨌든 숙박업이나 이거에 대한 소관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소관하지 않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이강선 의원

그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들이 내 소관하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협업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맥문동이나 송림숲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와 연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원화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맞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그와 연계된 각 실과들 부서들이 함께 협업하는 이런 것들이 맥문동 관리를 하는 소관부서에서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 주민분들하고도 저희가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거든요.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하니까 주민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관련부서쪽 하고도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이번에 정말 맥문동 개화할 때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가꾸느라 군과 주민들 애쓰셨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홍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년부터 축제로 연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매력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입구 진입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런데 지난번 보건소에서 걷기 행사할 때 보니까 그쪽 4주차장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송림숲이.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 주차장만 이용이 편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그 옆에 생물자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까지 같이 협력해서 축제 때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하고 축제 전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또 울타리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뺑 둘러서 다 울타리 설치하실 거 아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일부 구간은 울타리가 지금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림숲을 맡고 나서 전 구간을 다 걸어봤는데요. 해양생물자원관 그 뒤쪽으로 해서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울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구간을 다 울타리를 쳐서 왕래를 막겠다는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니까요. 연꽃축제 같은 것도 가보면 입구가 여러 곳입니다. 모든 장소를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을 하고 관리를 잘 해나가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구가 여러 개면 또 그 곳곳마다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테지만 그 부분 준비 잘 해주시고 계획을 잘 하시겠지만 홍성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최대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장항시내에 먹거리가 가장 잘 되어 있고 또 만족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송림 자체 내에서 먹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축제할 때 지역의 음식점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 주셔서 송림에 오신 분들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지역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석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올해 핫플레이스는 단연코 송림 맥문동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외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주말이나 휴일에 가

보면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오솔길들이 다 포화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서리나 가장자리는 사람 발길에 밟혀서 맥문동이 짓이겨지는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당연한 귀결이겠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많이 받는 것도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 관리 차원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유료화도 검토하신다고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저희가 용역하고 나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요.

○한경석 의원

유료화로 인해서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즐기고 이러는 분들이 걸러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그 단지를 계속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도록 재투여가 돼야 되겠죠.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사구 있는 부위. 갯벌과 소나무 있는 부위가 계속 침식되거나 사람들 발길에 의해서 뭉개지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겠는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카이워크가 오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한경석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그곳이 아주 일몰 경관이 일품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한경석 의원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전문 사진사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일몰 후에 20분 후 아니면 30분 이내에 다시 크로스 한다든가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맥문동과 스카이워크가 보다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스카이워크 입장할 때도 한 분 계시고 매표하는 쪽에 두 분 계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만약에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1시간 더 뒤로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몰시간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 직원분들하고 가능할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인력부서쪽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겠습니다.

○한경석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김원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김원섭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다녀간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관광객들이요?

○김원섭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제가 성수기 때는 계속 주말에도 가 있기도 하고 연휴 때도 가 있기도 하는데 가면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김원섭 의원

어필을 하고 가신 분들은 안 계셨다 이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김원섭 의원

제가 주로 듣는 얘기가 “좋은데 배고프니까 나가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근거리에 요식업 할 수 있는 근거리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지금 송림숲 근처에는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GS25 앞쪽에 있는 식당이나 그런 곳도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식당이 좀 생겼고 캠핑장 안쪽으로 들어가도 카페가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게 주민분들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송림숲에 그런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장항읍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고민은 많이 됩니다.

○김원섭 의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스카이워크까지 쭉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전체적으로 제가 한 바퀴를 다 돌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관광객분들의 걷는 패턴을 보면 스카이워크에서 맥문동 꽃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걷고 있어서 한 40분 정도 걷고 인근 카페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걸로 판단 됐습니다.

○김원섭 의원

제가 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먹거리가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먹고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우리 김아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쪽에 이동해서 먹거리 그쪽은 그쪽 가서 먹으면 또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다시 들어 오지 않고. 혹시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그렇다면 요청을 하세요. 해서 먹거리조성 일부 해서 더 머무를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부탁드립니다.

○김원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희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홍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계해서 8361부대 거기가 소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홍성희 의원

사실은 거기가 그게 있음으로 해서 송림하고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8361소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네, 알겠습니다.

○홍성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숙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받았습니다. 22일과 23일 보충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방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질문 위주보다는 답변 위주로 간단하게 해서 추가 답변서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경석 의원님께서 22일 농정과 질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경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22일 농정과를 상대로 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가치상승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명이 들어간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 농산물 브랜

드 밸류 프로모션의 강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 뒤 문맥을 떼어놓고 들여다 보면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특정지역명을 언급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향후 익명이나 지역명 거론 시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의원의 의견개진에 제약을 가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의사진행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또 다양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개진되는 9대 의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신상발언의 요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정지역명이나 또 개인의 명예와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위축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신 실·과·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언론인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김경제, 김아진, 김원섭, 한경석,
이강선, 이지혜, 홍성희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군수	김기웅
부군수	김성관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사회복지실장	박범수
자치행정과장	정진형
투자유치과장	노희랑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재무과장	홍경숙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문화예술과장	황인신
안전총괄과장	김명원
교육체육과장	이진희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신동순
지역경제과장	구승완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전용각
도시건축과장	정해민
보건소장	이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순종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김맹선
수석전문위원	신동우